

0 들어가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中)

1 묵상과 큐티

묵 상

히) מִשְׁכָּח (하가) 중얼거리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속삭이다

[수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1: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63: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잠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쏘느니라
[사31:4]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돌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큐 티 (QT)

큐티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영어의 Quiet Time(고요한 시간)의 앞글자를 따서 QT(큐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큐티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낸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는 가장 주된 활동이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흔히 묵상과 큐티가 동일시 되지만, 큐티는 말씀 묵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요한 중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觀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영성일기,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경건한 독서 등이 모두 큐티 안에 들어갑니다.

큐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경건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무르며 교제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창 시절 교실 안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눈 친구들은 소수일 겁니다. 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친구라고 부르기엔 하지만 피상적인 관계만을 나눌 뿐입니다. 큐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2 묵상

묵상 : 큐티의 기준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표준적인 길

통독과 묵상의 차이

묵상의 치명적 실수와 핵심 목적

말씀 묵상은 도덕적 교훈이나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묵상의 결과로써 삶의 실천 방안이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묵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억지스럽게 어떤 실천 방안이나 도덕적 교훈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삶의 실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말씀 묵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화 <나니아 연대기>

옷장 속의 세계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 아이들이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사자와 마녀의 세계를 경험하듯이 말입니다.



딤후 3:16~17, 벰후 1:20~21를 찾아보세요.